

劉完素의 「三消論」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金重漢^{1*}

A Study on the Liu Wansu's 「Theory on the three wasting-thirst」

Kim Joong-han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Wasting-thirst(消渴) occurs due mainly to dryness-heat(燥熱) which by depleting 'Fluid and Humor'(津液) make symptoms of thirst(口渴)·swift digestion with rapid hungering(消穀善饑)·frequent urination(小便頻數) according to 『Internal Classic』(內經). However, the doctors of those days had a tendency to manage wasting-thirst with herbal drugs of dryness-heat or with drugs that tonifies the kidney. Liu Wansu(劉完素) thought that those kinds of drugs intensify gastro-intestinal dryness-heat and consequently could not be suitable for the patients with wasting-thirst. He said that they had mistaken about the relation between five viscera(五臟) and six climate condition(六氣) and that they did not know thoroughly on the theory of branch and root(標本).

For preventing the disease of wasting-thirst, Liu Wansu(劉完素) recommended avoiding gastro-intestinal drying caused by the intake of dryness-heat diet, and warned not to deplete 'Fluid and Humor' due to stress-induced fire(火), not to damage yin qi(陰氣) through severe diseases.

Key Words : Liu Wansu, wasting-thirst, diabetes, branch and root, dryness-heat

I. 緒論

「三消論」은 金나라 劉完素(河間)의 저작이지만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보관되어 있던 것을 張從正의 친구인 麻徵君(九疇)이 직접 그 가문을 찾아가서 얻게 된 것으로, 그는 이것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을 걱정하여 책머리에 六位와 臟象의 두 가지 그림을 증보하고 나머지는 윤색할 겨를도 없이 친구인 穆子昭에게 전해주었고, 穆子昭로

부터 다시 常仲明이 하나의 판본을 전수받게 되었지만 후에 戰亂을 맞으면서 마침내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고향 사람인 霍司承君에게서 그 문장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傳寫된 것이 매우 오류가 많아서 다만 베껴서 기록을 해 두면서 後代의 學者가 나와서 상세하게 訂正하여 간행하기를 기다린다고 설명하고 있다.¹⁾

1)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91. “徵君親詣其家, 求先生平昔所著遺書, 乃出『三消論』·『氣宜』·『病機』三書, 未傳于世者. 文多不全, 止取『三消論』, 於卷首增寫六位藏象二圖, 其餘未違潤色, 卽付友人穆子昭. 子昭, 乃河間門人, 穆大黃之後也, 時覓官于京師, 方且告困, 徵君欲因是而惠之. 由是, 余從子昭, 授得一本, 後置兵火, 遂失其傳. 偶於鄉人霍司承君祥處, 復見其文. 然傳寫甚誤, 但依倣而錄之, 以待後之學者, 詳爲刊正云.”

* 교신저자 : 金重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Tel: 017-541-0066, 051-850-8638.
E-mail: kjhan24@hanmail.net
접수일(2010년 12월24일), 수정일(2011년 1월11일), 게재확정일(2011년 1월12일)

따라서 劉完素의 「三消論」은 張從正의 門人들에 의해서 현재는 『儒門事親』이라는 책 중 13권에 덧붙여져서 후세에 전해지게 되는데, 그의 이론 중에는 消渴의 3대 증상인 多飲, 多食, 多尿의 병리기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당시의 醫家들이 消渴의 치료에 있어서 燥熱한 약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대 의학의 당뇨병과 관련된 『內經』의 문장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이에 소개하는 바이다.

II. 本 論

「三消論」은 ‘消渴’에 대하여 논한 것인데, 우선 劉河間이 살던 지역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河間이 살았던 지역은 중국 북방 지역으로 風土가 메마르고 사람들이 타고난 체질이 강하며, 음식물과 진한 술로 인하여 溫熱이 쌓이기 쉬웠다. 게다가 金代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하고 疫病이 창궐하여 항상 대부분의 질병이 화로 변화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醫師들이 여전히 예전에 쓰던 방식을 습관적으로 고수하여 『和劑局方』 중의 溫補藥과 香燥藥을 제멋대로 사용하기에 익숙하였는데, 이것은 화의 병에 화를 더해 주는 것과 같아서 환자에게 엄청난 危害를 가져다줌으로써 후세에서 말하는 ‘溫燥時弊’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²⁾ 따라서 「三消論」이 쓰여진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河間은 당시 의가들이 消渴病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그 원인을 腎의 虛冷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燥熱한 약제를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비난하면서 ‘主火論’을 주장하고 寒涼한 약제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의 醫家들이 消渴病을 치료했던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東醫寶鑑·消渴』편을 살펴보면 消渴을 上消·中消·下消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上消에는 白虎加人蔘湯 등을 사용하였고, 中消에는 調胃承氣湯 등을 사용하였으며, 下消에는 六味地黃丸 및 加減八味丸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下消에 八味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許叔微의 『本事方』을 인용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消渴은 腎虛하여 생기는 것이다. …… 만약 腰와 腎이 이미 虛冷하다면 穀氣를 썩어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 모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小便이 된다. 그러므로 단맛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소변으로 나오며 그 색깔이 淸冷하면서 肌膚가 마르는 것이다.”³⁾고 하여 消渴病의 중요한 병리기전 중의 하나를 腎虛冷으로 인식하면서 소변이 많아지는 이유가 腎이 虛冷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肺는 五藏의 덮개가 되는데, 만약 아래에 暖氣가 있어서 썩으면 肺가 윤택해지고, 만약 아래에 冷氣가 지극하면 陽이 상승할 수 없으므로 肺가 건조해지면서 渴症을 일으키는 것이다. 『周易』에 보면 乾卦가 위에 있고 坤卦가 아래에 있으면 天地否卦가 되는데, 陽은 陰이 없으면 하강할 수 없고 陰은 陽이 없으면 상승하지 못하므로 상하가 사귀지 못하는 否卦가 되는 것이다. 비유컨대 술 속에 물이 있을 때 火力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또한 나무판으로 덮어두면 暖氣가 위로 올라가므로 나무판이 윤택해질 수 있지만, 만약 火力이 없다면 水氣가 상승할 수 없어서 이 나무판은 마침내 윤택해질 수 없는 것이다. 火力은 腰와 腎을 強盛하게 하니 평상시에 腎氣를 煖補하면 飲食 먹은 것이 火力을 얻게 되어 상부를 윤택하게 하면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또한 마르고 渴症이 나게 하는 질환을 없어지게 하니 八味腎氣丸을 복용하는 것이 마땅하다.”⁴⁾고 하여 消渴病 중 일부의 원인이 아래쪽에 火力이 없는 탓으로 인식하면서 평상시에 八味腎氣丸을 복용하여 ‘腎氣를 따뜻하게 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許叔微는 補脾를 하려면 ‘常須暖補腎氣’

2) 嚴世芸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 250.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 508. “消渴者, 腎虛所致. …… 若腰腎既虛冷, 則不能蒸化穀氣, 盡下爲小便, 故味甘不變, 其色淸冷, 則肌膚枯槁也.”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 508. “肺爲五藏華蓋, 若下有暖氣, 蒸則肺潤, 若下冷極, 則陽不能升, 故肺乾而渴. 易乾上坤下, 其卦爲否, 陽無陰不降, 陰無陽不升, 故成否也. 譬如釜中有水, 以火煖之, 又以板覆, 則暖氣上騰, 故板能潤. 若無火力, 則水氣不能上升, 此板終不得潤. 火力者, 腰腎強盛, 常須煖補腎氣, 飲食得火力, 則潤上而易消, 亦免乾渴之患, 宜服八味腎氣丸.”(본 내용은 許叔微, 『普濟本事方』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年初版 1987年 第4次印刷本에는 諸款虛汗消渴의 p.84에 나옴)

해야 한다고 하면서 溫脾湯·實脾散 등 처방에 附子나 肉桂 등의 溫腎시키는 약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곧 그가 治腎을 治脾보다 중시한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古人들이 益腎하는 처방을 만들 때는 滋潤시키는 약으로 金匱腎氣丸 등을 썼는데 모두 地黃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비록 腎氣를 暖補할 것을 주장하긴 했지만 剛燥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였다.⁵⁾

河間은 消渴病에 대한 당시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병의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말세에 消渴을 논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근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消渴은 上部에 實熱이 있고 下部가 虛冷한 것이다. 上熱하기 때문에 煩渴하여 물을 많이 마시고, 下寒하기 때문에 小便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근본 원인이 下部의 腎水가 虛하여 上焦의 心火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므로 上部로 實熱이 있으면서 下部로 虛冷한 것이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水是 숫자로는 一이니 萬物의 근본이고 五行 중에 제일 앞선다. 그러므로 腎水는 사람의 근본이고 목숨의 으뜸이니 衰弱하게 해서는 안 된다. 根本이 단단하지 못하면 枝葉이 무성할 수 없듯이 元氣가 단단하지 못하면 形體가 영화롭지 못한 것이다. 消渴病은 下部의 腎水가 극도로 冷해진 것인데 만약 다시 寒藥을 복용하면 元氣가 점점 虛해지고, 下部의 腎水가 점점 衰해지면 上焦의 心火가 지나치게 심해져서 難治가 된다. 다만 暖藥으로 元氣를 補養해 주어야 한다. 만약 下部의 腎水가 實해져서 勝하면 上焦의 火를 물러나게 하여 자연스럽게 渴症이 그치면서 小便이 평상시와 같아지고 병이 나올 것이다.’고 하였다.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정면으로 仲景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니, 이른바 교묘한 말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理致에 있어서는 실제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현 시대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오래된 것이다.”⁶⁾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의 醫家들은 消渴病의 渴症이나 多尿의 이유를 下部에 陰氣가 實해지고 陽氣가 虛해지면 마신 물을 蒸化시켜줄 수가 없어서 소변이 평상시보다 많아지고 위로는 갈증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식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말하기를 ‘水氣가 實한 자는 반드시 火를 제어할 수 있고, 虛한 자는 火를 제어할 수 없다. 그러므로 陽實陰虛하면 熱이 그 진액을 말려서 小便이 淋瀝하면서 평상시보다 적어지는 것이고; 陰實陽虛하면 水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小便이 自利하면서 평상시보다 많아지는 것이다.’고 하는데, 어찌 消渴에서 小便이 많아지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겠는가! 어찌서 그러한가? 대개 燥熱이 크게 심해지면 三焦와 腸胃의 腠理가 끊어오르면서 멍치고 치밀해져서 막히는 것이니 水液이 腸胃의 밖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百骸를 榮養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腸胃의 밖에 燥熱이 크게 심해지면 비록 반복해서 물을 많이 마셔도 마침내 바깥을 적셔주지 못하기 때문에 渴症이 그치지 않는 것이고, 小便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물을 많이 마셔도 腸胃의 외부에 스며들지 못하므로 小便을 자주 보는 것이다.”⁷⁾고 설명하고 있다. 하부에 陽氣가 부족해서 데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三焦와 腸胃에 燥熱이 심해지면서 腠理를 막아버림으로써 조직액의 투과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腸胃의 내로는 수분이 넘쳐서 마신 물을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지만, 腸胃의 바깥쪽으로는 수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되어 渴症을 느끼게

又曰‘水數一，萬物之本，五行之先。故腎水者，人之本，命之元，不可使之衰弱。根本不堅，則枝葉不茂，元氣不固，則形體不榮。消渴病者，下部腎水極冷，若更服寒藥，則元氣轉虛，而下部腎水轉衰，則上焦心火亢甚而難治也。但以暖藥，補養元氣。若下部腎水得實而勝退上焦火，則自然渴止，小便如常而病愈也。’若此之言，正與仲景相反，所謂巧言似是，於理實違者也。非徒今日之誤，亦已久哉。”

7)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7. “彼謂‘水氣實者，必能制火；虛者，不能制火。故陽實陰虛，而熱燥其液，小便淋而常少；陰實陽虛，不能制水，小便利而常多。’豈知消渴小便多者，非此謂也！何哉？蓋燥熱太甚，而三焦腸胃之腠理，怫鬱結滯，緻密壅塞，而水液不能滲泄，浸潤於外，榮養百骸。故腸胃之外，燥熱太甚，雖復多飲于中，終不能浸潤於外，故渴不止。小便多出者，爲其多飲，不能滲泄於腸胃之外，故數溲也。”

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p. 162-163.

6)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7. “叔世，論消渴者，多不知本。其言‘消渴者，上實熱而下虛冷。上熱故煩渴多飲，下寒故小便多出。本因下部腎水虛，而不能制其上焦心火，故上實熱而下虛冷。’

된다고 하는 ‘玄府氣液說’의 이론을 주장한 것이다.⁸⁾ 그 구체적인 이유를 『內經』에 나오는 ‘渴’과 관련된 문장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內經』에 따르면 ‘消渴’은 비록 五臟六腑의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고 병이 생기는 원인도 각각 다양하지만, 모두가 ‘燥熱’이라는 한 가지로 귀속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 膈消

『素問·氣厥論』에서 말하기를 “心移熱於肺，傳爲膈消.”라고 하였고, 王冰이 주하기를 “心和肺의 사이에는 중간에 비스듬하게 膈膜이 있으며, 膈膜의 아래 쪽으로는 속으로 橫膈膜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心熱이 肺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전해지면 속으로 橫膈膜이 熱해져서 消渴이 되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⁹⁾고 하여 ‘형격막이 熱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2. 脾熱

『素問·痿論』에서 말하기를 “脾氣熱，則胃乾而渴，肌肉不仁，發爲肉痿.”라고 하였는데, 王冰이 주하기를 “脾와 胃는 膜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脾氣熱하면 곧 胃液이 스며들면서 소모되므로 마르면서 또한 渴症을 느끼는 것이다. 脾는 肌肉을 주관하는데, 지금 熱이 속에서 다투므로 肌肉이 不仁하면서 肉痿가 생기는 것이다.”¹⁰⁾고 하여 ‘脾氣의 熱로 인하여 胃의 津液이 마르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腎熱

『素問·刺熱論』에서 말하기를 “腎熱病者，先腰痛胎酸，苦渴數飲，身熱.”이라고 하였는데, ‘腎熱病’ 자체가 消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消渴에 해당

하는 증상인 口渴과 多飲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설명한 것으로 ‘腎臟의 熱’이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4. 胃與大腸熱結

① 『素問·陰陽別論』에서 말하기를 “二陽結爲之消.”라고 하였는데, 王冰이 주하기를 “二陽結은 胃와 大腸에 모두 熱이 뭉쳐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腸胃가 熱을 저장하고 있으면, 곧 水穀을 잘 소모시키는 것이다.”¹¹⁾고 하여 ‘腸胃의 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② 『素問·氣厥論』에서 말하기를 “大腸移熱於胃，善食而瘦入，謂之食亦.”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入’이라는 글자와 ‘謂’라는 글자가 『內經』의 판본에 따라 글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먼저 王冰이 주석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王冰이 주하기를 “胃는 水穀이 모이는 바다로 그 氣가 바깥으로 肌肉을 길러주는 것인데, 熱이 水穀을 소모해버리면서 또한 肌肉을 녹이기 때문에 ‘잘 먹지만 말라 들어가는 것’이다. 食亦이라는 것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바뀌는 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肌膚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亦’은 易(역)이다.”¹²⁾고 하여 ‘瘦入’을 같이 붙여서 ‘말라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新校正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甲乙經』에는 ‘入’이 ‘又’로 되어 있다. 王冰은 注에서 ‘善食而瘦入也’라고 하여 아무런 뜻이 없게 만들었으니 『甲乙經』에서 ‘又’라 하여 아래 문장에 연결해서 읽는 것 하고는 같지 않다.”고 하여 ‘入’자는 ‘又’자와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形誤이고, 아래쪽에 붙여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太素』에는 ‘謂’자가 ‘胃’로 되어 있으며 ‘入’자는 뒤쪽에 붙여서 끊어 읽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大腸이 장차 熱을 胃에게 전해주면, 胃가 熱氣를 얻어 實하고 왕성해지면서 食物을 소화시키므로 배가 잘 고프면서 많이 먹는 것이고, 그 熱이 왕성하여

8) 嚴世芸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p. 258-259.

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3. “心肺兩間，中有斜膈膜，膈膜下際，內連于橫膈膜，故心熱入肺，久久傳化，內爲膈熱，消渴而多飲也.”

10)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47. “脾與胃以膜相連，脾氣熱則胃液滲泄，故乾而且渴也. 脾主肌肉，今熱薄于內，故肌肉不仁而發爲肉痿.”

1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56. “二陽結，謂胃及大腸俱熱結也. 腸胃藏熱，則喜消水穀.”

1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4. “胃爲水穀之海，其氣外養肌肉，熱消水穀，又鑠肌肉，故善食而瘦入也. 食亦者，謂食入移易而過，不生肌膚也. 亦，易也.”

음식물이 胃로 들어가도 肌肉을 만들지 못하므로 마르는 것이다. ‘亦’자는 뜻이 ‘易’자에 해당하는데, 胃中이 熱하므로 胃로 들어간 음식물이 바뀌어 사라져서 肌肉이 되지 않으므로 마르는 것이다.”¹³⁾고 하였으니 ‘入胃之食亦’에서 ‘亦’자를 ‘바뀔 역(易)’자로 이해하여 ‘入胃之食, 變易消無’로 해석하였으니 ‘위로 들어간 음식물이 바뀌어 사라진다’고 풀이하고 있다.

글자가 조금씩 차이가 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胃熱로 인하여 善食而瘦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食亦이 된다’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이곳에서도 ‘胃熱’이 원인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③ 『素問·脈要精微論』에서 말하기를 “痺成爲消中.”이라고 하였는데, 王冰이 주하기를 “痺은 濕熱을 말한다. 熱이 속에 쌓이므로 변하여 消中이 되는 것이다. 消中의 증상은 잘 먹으면서도 마르는 것이다.”¹⁴⁾고 하였으니 ‘濕熱’이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다.

5. 小腸痺熱

『素問·舉痛論』에서 말하기를 “熱氣留于小腸, 腸中痛, 痺熱焦渴, 則堅乾不得出.”이라고 하였는데, 王冰이 주하기를 “熱이 津液을 滲泄시키므로 大便이 단단해지는 것이다.”¹⁵⁾고 하였으니 역시 ‘小腸의 熱로 인하여도 渴症을 일으킴을 설명하고 있다.

6. 脾痺(消渴)

『素問·奇病論』에서 말하기를 “有口甘者, 病名爲何? 岐伯曰, 此五氣之所溢也, 名曰脾痺. ……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 肥者令人內熱,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 轉而爲消渴.”이라고 하였는데, 王冰이 주하기를 “기름진 것을 먹으면 腠理가 뻣뻣해지면서 陽氣가 밖으로 발설되지 못하므로 기름진 것이 사람

으로 하여금 內熱하게 만드는 것이다. 甘味는 성질이 和緩하여 發散을 거역하므로 甘味는 사람으로 하여금 中滿하게 하는 것이다. 內熱하면 陽氣가 炎上하게 되고, 炎上하면 물을 마시지만 목구멍이 마른 것이고; 中滿하면 陳氣가 有餘하게 되고, 有餘하면 脾氣가 위로 넘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氣가 위로 넘치면 進환하여 消渴이 되는 것이다.”¹⁶⁾고 하여 기름지거나 甘味를 많이 섭취하여 消渴의 병이 생김을 설명하고 있다.

河間은 이것에 대하여 보충하여 설명하였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오직 胃氣를 근본으로 삼는 것으로, 脾胃가 합하여 表裏가 되면서 脾胃가 中州가 되니, 마땅히 溫補한 것을 받아들여 飲食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消渴은 脾胃가 지극히 虛한 것이니 溫補한 것으로 돕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 寒藥을 복용하여 脾胃를 손상시킨다면 本氣가 虛乏해져서 難治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陰陽·寒熱·虛實·補瀉의 이치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妄言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어찌 「腹中論」에서 말한 ‘帝曰, 夫子數言, 熱中消中, 不可服膏粱芳草石藥. 石藥發癩, 芳草發狂.’이라고 한 것을 안다고 하리오!”¹⁷⁾라고 하여 膏粱珍味나 芳香性 약제 및 金石性 약제 등이 모두 消渴의 병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이유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1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 468. “大腸將熱與胃, 胃得熱氣, 實盛消食, 故喜飢多食; 以其熱盛, 食入於胃, 不作肌肉, 故瘦. 亦, 義當易也, 言胃中熱, 故入胃之食, 變易消無, 不爲肌肉, 故瘦.”

1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5. “痺, 謂濕熱也. 熱積于內, 故變爲消中也. 消中之證, 善食而瘦.”

1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21. “熱滲津液, 故便堅也.”

1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62. “食肥則腠理密, 陽氣不得外泄, 故肥令人內熱. 甘者性氣和緩而發散逆, 故甘令人中滿. 然內熱則陽氣炎上, 炎上則欲飲而噙乾; 中滿則陳氣有餘, 有餘則脾氣上溢, 故曰其氣上溢, 轉爲消渴也.”

17)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p. 488-489. “或言, ‘人惟胃氣爲本, 脾胃合爲表裏, 脾胃中州, 當受溫補, 以調飲食. 今消渴者, 脾胃極虛, 益宜溫補, 若服寒藥, 耗損脾胃, 本氣虛乏而難治也.’ 此言乃不明陰陽·寒熱·虛實·補瀉之道, 故妄言而無畏也. 豈知「腹中論」云‘帝曰, 夫子數言熱中消中, 不可服膏粱芳草石藥, 石藥發癩, 芳草發狂.’”

河間이 「三消論」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內經』에서 消渴과 관련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¹⁸⁾

1. 肺消

『素問·氣厥論』에서 말하기를 “心移寒於肺, 肺消. 肺消者, 飲一溲二, 死不治.”라고 하여 ‘寒’도 肺로 전해지면 ‘肺消’의 증상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는데, 王冰이 주하기를 “心은 陽藏이지만 도리어 寒을 받더라도 寒氣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肺로 옮겨지게 되는데, 寒이 心火를 따르면서 속으로 金精을 녹이니 金이 火邪를 받으므로 中消하는 것이다.”¹⁹⁾고 하여 ‘寒도 心火를 따라 火邪로 바뀐’으로써 肺消의 증상이 나타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2. 消癰

『靈樞·五變』에서 말하기를 “黃帝曰, 人之善病消癰者, 何以候之? 少俞答曰, 五臟皆柔弱者, 善病消癰. …… 其心剛, 剛則多怒, 怒則氣上逆, 胸中畜積, 血氣逆留, 臆皮充肌, 血脈不行, 轉而爲熱, 熱則消肌膚, 故爲消癰.”이라고 하였다. 결국 五臟이 모두 柔弱한 자가 消癰病에 잘 걸리는데, 그 이유는 그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여 자주 ‘怒氣’를 발하게 되면 胸中에 熱이 축적되어 血脈이 잘 운행되지 못하여 ‘熱’이 되면서 消癰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3. 消穀善饑

① 『靈樞·大惑論』에서 말하기를 “黃帝曰, 人之善饑而不嗜食者, 何氣使然? 岐伯曰, 精氣并於脾, 熱氣留於胃, 胃熱則消穀, 穀消故善饑. 胃氣逆上, 則胃脘寒, 故不嗜食也.”라고 하였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精氣는 陰氣이다. 胃의 陰氣가 脾와 함께 속에 머무르게 되면, 胃中이 유독 熱해지게 되므로 食物을 소화시켜서 자주 배고픈 것이다. 胃의 氣는 熱이 심해져서 逆上하여 떠나게 되면 胃와 咽中이 冷해지는

까닭으로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²⁰⁾고 하여 ‘胃熱’이 있으면 食物을 잘 소화시켜서 배가 빨리 고파짐을 설명하고 있다.

② 『靈樞·師傳』에서 말하기를 “胃中熱, 則消穀, 令人懸心善飢.”라고 하여 여기에서도 ‘胃熱’로 인하여 消穀善飢함을 말하고 있다.

③ 『靈樞·五邪』에서 말하기를 “邪在脾胃, 則病肌肉痛. 陽氣有餘, 陰氣不足, 則熱中善饑; 陽氣不足, 陰氣有餘, 則寒中腸鳴腹痛.”이라고 하였는데, 楊上善이 주하기를 “陽氣는 곧 足陽明이고, 陰氣는 足太陰이다.”²¹⁾고 하였다. 따라서 脾胃에 陽氣가 유여하고 陰氣가 부족하면 中焦가 熱로 변화하여 ‘胃熱’이 형성해지고 脾陰이 부족해지므로 배가 잘 고파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의학의 당뇨병에 해당하는 용어를 『內經』에서 정리해보면 膈消·脾癰·消渴·消癰·肺消·食亦·消中 등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 ‘燥熱’로 인하여 津液을 말림으로써 口渴·消穀善飢·小便頻數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河間이 주장하기를 “五臟六腑와 四肢百骸는 모두 脾胃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그 津液을 운행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濡潤하고 滋養하는 것인데, 후세의 의가들은 燥熱한 약제로써 脾胃를 길러서 土의 氣를 滋潤하려고 하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더구나 消渴의 病은 濕寒한 陰氣가 극도로 쇠약해지고 燥熱한 陽氣가 지나치게 심해진 것에 근본 원인이 있는데, 다시 燥熱한 약제를 복용하는 것은 곧 脾胃의 氣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이다.”²²⁾고 지적한 것이다.

2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 497-498. “精氣, 陰氣也. 胃之陰氣, 并在脾內, 則胃中獨熱, 故消食喜飢. 胃氣獨熱, 逆上爲離, 所以胃咽中冷, 故不能食也.”

2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 360. “陽氣即足陽明也, 陰氣即足太陰也.”

22)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6. “五臟六腑, 四肢百骸, 皆稟受於脾胃, 行其津液, 相與濡潤滋養矣. 後之醫者, 欲以燥熱之劑, 以養脾胃, 滋土之氣, 不亦舛乎? 況消渴之病者, 本濕寒之陰氣極衰, 燥熱之陽氣太甚, 更服燥熱之藥, 則脾胃之氣竭矣.”

18) 梁運通 主編. 黃帝內經類析. 內蒙古.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p. 359-360.

1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2. “心爲陽藏, 反受諸寒, 寒氣不消, 乃移于肺, 寒隨心火, 內鑠金精, 金受火邪, 故中消也.”

河間은 당시의 醫家들이 消渴病의 치료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燥熱한 약제를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五臟과 六氣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문제점이 있음이고, 둘째는 標本의 이론에 대하여 밝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첫째, 五臟과 六氣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말세에는 五運六氣의 虛實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熱한 것은 實이고, 虛한 것은 寒이다.’고 말하니, 그것은 다만 ‘心火의 陽熱’ 하나만의 虛實을 아는 것이지, 臟腑六氣의 虛實을 아는 것은 아니다. 대개 肺의 本氣는 清하지만 虛하면 溫해지고; 心의 本氣는 熱하지만 虛하면 寒해지며; 肝의 本氣는 溫하지만 虛하면 清해지고; 脾의 本氣는 濕하지만 虛하면 燥해지며; 腎의 本氣는 寒하지만 虛하면 熱해지는 것이다.”²³⁾고 하여 五臟과 六氣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消渴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설명하기를 “말세에는 ‘腎虛하여 心火를 제어하지 못하면 上은 實熱하고 下는 虛冷해지니 熱藥으로 腎水를 溫補함으로써 心火를 이겨서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陰陽·虛實의 이치에 밝지 못한 것이다. 무릇 腎水는 陰에 속하여 本氣가 寒한데, 虛해지면 熱이 되고; 心火는 陽에 속하여 本氣가 熱한데, 虛해지면 寒이 되는 것이다. 만약 腎水의 陰이 虛하여 心火의 陽이 實해진다면, 이것은 陽實하고 陰虛해짐을 말하는 것으로 上下가 모두 熱해지는 것이 분명하다.”²⁴⁾고 하여 上下가 모두 熱하여 消渴의 병이 생기니 寒涼한 약제를 써서 치료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또 말하기를 “무릇 寒物은 陰에 속하여 水를 기르고

火를 瀉할 수 있고; 熱物은 陽에 속하여 火를 기르고 水를 소모시킨다. 지금 腎水가 心火를 이기지 못하여 上下가 모두 熱한데, 어찌하여 熱藥으로 腎水를 길러서 心火를 이기려고 한단 말인가? 어찌 오류가 없하겠는가!”²⁵⁾라고 하여 燥熱한 약제를 사용하여 補腎함으로써 心火가 왕성한 것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치료법으로 제시하기를 “각각의 臟腑에 해당하는 六氣는 반드시 ‘腎水가 홀로 寒을 담당하고, 心火가 홀로 熱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每臟과 每腑마다 諸氣가 서로 同和를 이루면서 宣通하여 平衡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五常의 道는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어서 孤陰은 자랄 수 없고 獨陽은 완성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다만 一物이 있으면 모두 五行을 갖추고 있어서 교대로 서로 구제하면서 기르면 이것을 ‘和平’하다고 부르고, 교대로 서로 克伐하면 이것을 ‘衰하거나 盛하다’고 부르며, 變亂이 생겨서 尙상됨을 잃으면 ‘환난과 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²⁶⁾고 하여 결국 ‘和平’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燥熱’의 과도로 생긴 消渴病을 치료할 때에는 ‘寒涼’한 약제를 사용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標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보면, “『內經』에서 ‘消渴’을 말한 것이 모두 이와 같은데 어찌 분명하지 않단 말인가! 그러나 오히려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은 ‘모든 氣가 지나치게 極하면 반대되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誤認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陽極反似陰’이 바로 이것이다.”²⁷⁾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3)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p. 486-487. “叔世, 不分五運六氣之虛實, 而一概言熱爲實而虛爲寒, 彼但知心火陽熱一氣之虛實, 而非臟腑六氣之虛實也. 蓋肺本清, 虛則溫; 心本熱, 虛則寒; 肝本溫, 虛則清; 脾本濕, 虛則燥; 腎本寒, 虛則熱.”
24)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8. “叔世, 惟言‘腎虛不能制心火, 爲上實熱而下虛冷, 以熱藥溫補腎水, 欲令勝退心火’者, 未明陰陽虛實之道也. 夫腎水, 屬陰而本寒, 虛則爲熱; 心火, 屬陽而本熱, 虛則爲寒. 若腎水陰虛, 則心火陽實, 是謂陽實陰虛, 而上下俱熱, 明矣.”

25)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8. “夫寒物屬陰, 能養水而瀉火; 熱物屬陽, 能養火而耗水. 今腎水既不勝心火, 則上下俱熱, 奈何以熱藥養腎水, 欲令勝心火? 豈不謬哉!”
26)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7. “凡臟腑諸氣, 不必腎水獨當寒, 心火獨當熱, 要知每臟每腑, 諸氣和同, 宣而平之, 可也. 故余嘗謂, 五常之道, 陰中有陽, 陽中有陰, 孤陰不長, 獨陽不成. 但有一物, 皆備五行, 遞相濟養, 是謂和平, 交互克伐, 是謂衰盛, 變亂失常, 患害由行.”
27)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9. “『內經』應言渴者, 皆如是, 豈不昭晰歟! 然而猶有惑者, 諸氣過極, 反勝也, 是以人多誤也.”

劉河間이 그의 책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木이 지극하면 金과 유사해지고, 金이 지극하면 火와 유사해지며, 火가 지극하면 水와 유사해지고, 水가 지극하면 土와 유사해지며, 土가 지극하면 木과 유사해진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말하기를 ‘亢則害, 承乃制.’라고 말한 것으로, 자기가 亢盛한 것이 지나치면 도리어 자신을 이기는 것과 유사하게 변함을 말하는 것이다. 세속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유사한 것을 옳은 것으로 誤認하여 陽을 陰으로 삼음으로써 그 본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²⁸⁾고 하여 ‘陽極反似陰’에 대하여 ‘亢害承制論’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消渴의 치료에 대하여 방법을 제시하여 말하기를 “만약 標本에 밝지 못하다면 비슷한 것을 옳다고 인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어그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下部가 冷한 감각을 느끼면서 양쪽 무릎이 얼음과 같이 차다면 이것은 모두 心火가 하강하지 못하여 寒水와 유사하게 된 것이니, 寒藥을 주어서 下法을 3-5차례 하면 곧 火降水升하여 寒으로 변화한 것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어두워서 『周易』이나 『素問』과 같은 두 가지 서적을 썩어서 못쓰게 된 것처럼 없애버리니 참으로 슬픈 일이구나! 그러므로 處方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病의 標本에 밝고 藥의 효능을 꿰뚫으며 氣의 마땅한 바에 통달하여 해로움을 주지 않는 자라야 그 처방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²⁹⁾라고 하여 消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燬腎하는 약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寒涼한 약제를 사용하여 心火를 다스리는 것이 病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如陽極反似陰者, 是也.”

28)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9. “木極似金, 金極似火, 火極似水, 水極似土, 土極似木. 故經曰, 亢則害, 承乃制, 謂已亢極, 反似勝己之化. 俗流未知, 故認似作是, 以陽爲陰, 失其本意.”

29)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9. “若不明標本, 認似爲是, 始終乖矣. 故凡見下部覺冷, 兩膝如冰, 此皆心火不降, 狀類寒水, 宜加寒藥, 下之三五次, 則火降水升, 寒化自退. 然而舉世, 皆同執迷, 至如『易』『素』二書, 棄如朽壤, 良可悲夫! 故處其方, 必明病之標本, 達藥之所能, 通氣之所宜, 而無加害者, 可以制其方也已.”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河間은 消渴病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지적하기를 “飲食이나 服餌(丹藥을 먹음)가 마땅하지 않아서 腸胃가 마르고 氣液이 선통되지 못하거나; 혹은 精神을 어지럽게 소모시켜 그 법도를 지나치게 거슬렀거나; 혹은 大病으로 인하여 陰氣가 손상되고 血液이 虛衰해지면서 陽氣가 사나워지고 燥熱이 아주 심해져서 생기는 것이다.”³⁰⁾라고 하여 燥熱한 음식물에 의하여 腸胃를 말린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火를 많이 넘으로써 體內的 津液을 소모시키거나, 큰 병을 앓음으로써 陰氣가 손상됨으로써 燥熱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消渴病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종합하여 말하기를 “水少火多하면 陽實陰虛가 되어 病으로 熱해지고; 水多火少하면 陰實陽虛가 되어 病으로 寒해지는 것이니, 그것을 치료하는 자는 瀉實補虛하여 平衡을 이루는 것으로 기한을 삼을 뿐이다. 그러므로 消渴을 치료하는 자는 腎水인 陰寒의 虛를 補하고 心火인 陽熱의 實를 瀉하며, 腸胃에 燥熱이 심한 것을 제거하여 人身에 있는 津液의 衰를 匡救해야 하는 것이다.”³¹⁾고 하여 五味나 五氣가 太過하거나 不及한 것이 모두 병이 되므로 ‘瀉實補虛’하여 平衡을 이루는 것으로써 치법의 강령을 삼은 것이다.

또한 消渴病 환자가 평상시에 섭취하는 음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五味の 근본은 淡味이다. 淡은 胃土의 味이고, 胃土는 地이다. 地는 萬物의 근본이 되고, 胃는 一身의 근본이 된다. 『天元紀大論』에서 말하기를 ‘地에 있어서는 化가 되고, 化는 五味를 낳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五味의 근본은 淡味이고, 이로써 胃土에 배속되면서 淡味가 滲泄하여 利竅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燥가 急結하게 하는 것을 甘味가 緩하게 할 수 있으며, 淡味는 剛土가 지극한 것을 潤燥하게 할 수 있다. 急結한 것을 느슨

30)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7. “飲食服餌失宜, 腸胃乾涸, 而氣液不得宣平; 或耗亂精神, 過違其度; 或因大病, 陰氣損而血液衰虛, 陽氣悍而燥熱鬱甚之所成也.”

31)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7. “水少火多, 爲陽實陰虛而病熱也; 水多火少, 爲陰實陽虛而病寒也. 其爲治者, 瀉實補虛, 以平爲期而已矣. 故治消渴者, 補腎水陰寒之虛, 而瀉心火陽熱之實, 除腸胃燥熱之甚, 濟人身津液之衰.”

하게 하여 氣로 하여금 통행하게 함으로써 津液이 滲泄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消渴이 있는 사람은 그 藥과 음식으로 淡劑가 마땅한 것이다.”³²⁾고 하여 燥熱한 음식을 삼가고 淡味로 胃土를 도와야 消渴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III. 結 論

消渴의 내용을 『內經』에서 살펴보면 異名으로 膈消·肺消·脾痺·消痺·食亦·消中 등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燥熱’로 인하여 津液을 말림으로써 口渴·消穀善飢·小便頻數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河間이 살던 당시의 의가들은 주로 燥熱한 약제나 補腎하는 약제로 消渴病을 치료함으로써 『內經』에서 말한 消渴病의 원인인 ‘腸胃의 燥熱’을 더욱 조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

첫째, 五臟과 六氣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의 의가들은 五運六氣의 虛實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熱한 것은 實이고, 虛한 것은 寒이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腎水는 陰에 속하여 本氣가 寒하기 때문에 虛해지면 熱이 되고, 心火는 陽에 속하여 本氣가 熱하기 때문에 虛해지면 寒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腎水의 陰이 虛해지면 熱이 되는 것이고, 心火의 陽이 實해져도 熱이 되는 것이니, 上下가 모두 熱해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는 寒涼한 약제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 標本의 이론에 대하여 밝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모든 氣가 지나치게 極하면 반대되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誤認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陽極反似陰’하기 때문에 燥熱한 것이 지나치면 寒冷한 것처럼 보

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河間은 消渴의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燥熱한 음식물을 섭취하여 腸胃를 말리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火를 많이 넘으로써 體內의 津液을 소모시키거나, 큰 병을 앓음으로써 陰氣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또한 음식물의 섭취에 있어서는 淡味를 먹어서 津液을 滲泄하도록 하였는데, 五味의 근본은 淡味이니 무릇 燥가 三焦나 腸胃를 막히게 하여 口渴과 多尿를 일으키는 것을 늦추어 줄 수 있고 潤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 주로 寒涼한 약제를 사용하여 火降水升하게 함으로써 ‘燥熱’한 것을 치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參考文獻

1.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辭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1. p. 444.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 360, 468. pp. 497-498.
3. 梁運通 主編. 黃帝內經類析. 內蒙古.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p. 359-360.
4. 嚴世芸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 250. pp. 258-259.
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56, 105, 212, 213, 214, 221, 247, 262.
6.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 9.
7.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6, 487, 488, 489, 491.
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 508.
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p. 162-163.

32) 張從正. 金元四大家醫學全書(儒門事親).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 489. “五味之本者, 淡也. 淡, 胃土之味也; 胃土者, 地也. 地爲萬物之本, 胃爲一身之本. 「天元紀大論」曰 ‘在地爲化, 化生五味.’ 故五味之本, 淡也, 以配胃土, 淡能滲泄利竅, 夫燥能急結, 而甘能緩之, 淡爲剛土極能潤燥, 緩其急結, 令氣通行, 而致津液滲泄也. 故消渴之人, 其藥與食, 皆宜淡劑.”